

과학영재 학교 과학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신념과 교수활동 유형

김경진*, 권병두, 김찬중, 최승언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51-7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요약

국가차원의 창의적 고급 인적자원을 조기 발굴·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2년 4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일반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영재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단기간의 영재교육연수를 받은 후 영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단기간의 영재교육연수만으로 그동안 일반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가 영재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립하고 영재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교사의 신념이 교수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과학영재학교에서 과학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신념과 교수활동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과학영재학교 물리 교사 2명, 생물 교사 2명, 지구과학 교사 1명, 총 5명이다. 자료는 참여 교사 당 4차시 수업관찰 및 녹화, 심층면담을 통해서 수집하였고, 모든 수업과 면담 자료를 전사 후, 분석하였다.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는 이메일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참여교사들의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신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관과 교과목에 대한 신념이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신념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교사들의 신념체계는 ‘학생 중심’, ‘교사 중심’, ‘갈등 혼돈’,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었다. ‘학생 중심’ 신념체계를 가진 교사들은 수업진행 시 학생들의 질문이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며, 학생들이 교사의 지적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수업에 동참하게 하는 교실 참여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교사 중심’ 신념체계를 가진 교사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데 치중하고, 수업진행에서 학생보다 교사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기 보

다는 교사의 지적권위에 학생들이 의존하는 수동적인 교실 참여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갈등 혼돈’ 신념체계를 가진 교사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체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교수활동에서 전통주의 교수학습관이 많이 반영되고 있었다. 또한 참여 교사들의 신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범대 교사교육이나 영재교육 연수 그 자체보다는 사범대라는 장 속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활동들, 그리고 일반학교에서와 과학영재학교의 교직경험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사의 신념이 교수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며, 특히, 영재학생 담당교사의 경우는 영재교육에 관한 신념뿐 아니라 교수학습관과 교과목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 교수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재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성공적인 영재교육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영재교사교육과 영재교육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연구자가 관찰한 수업이외 R&E활동이나 다른 실험수업에서의 교수활동을 추가적으로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영재교사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교사뿐 아니라 과학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영재수업을 비교·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신념, 교수활동, 영재교육, 과학교사, 교사교육